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44호 보림사삼층석탑 및 석등



오래 고요

신병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가지산 기슭의 보림사
나란한 삼층석탑 앞에 섭니다
그만큼의 거리로
천년 세월 손 닿지 못한 그리움을 전하려
창 맑은 석등까지 밝혔습니다
날아가며 빛나는 오래 고요 곁에
생애보다 더 건더운 마음 하나 내려 놓습니다
덕분에 고요해졌습니다
신발 가지런히 벗어두고 살그머니 들어서면
말없이 문을 열어 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면 적멸궁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영겁의 고요로운 석꽃을 피웁니다
묵언발원의 끝말을 이으며
소리없이 씩씩 웃는 고요의 그 말씀에
너도 나도 그렇게 고요해질 뿐입니다
한 세월이 뜨거워
잠시 머물렀다 떠난 그대도
지금쯤 햇살 고요한 아침이면 좋겠습니까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신병은 시인은... 1989년 〈시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바람과 함께 풀잎이〉 등.

“출가, 기다리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조계종승진위, 출가제도 공청회... 다양한 제언 쏟아져

조계종 출가자 수의 감소와 노령화는 이미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2001년에는 4백 76명이었던 사미, 사미계 수지자 수는 2003년 3백 73명으로 줄었고, 2008년부터는 2백 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상태로는 10년 뒤에는 한해 1백 명의 출가자도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가 6월 14일 개최한 ‘출가제도 개선과 출가자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는 이런 고민이 담겨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출가제도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대부분 기다리는 출가가 아닌 적극적인 출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계종 교육국장 가섭 스님의 주장한 고령자와 장애인 출가를 허용하는 특수출가제도 도입을 주장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는 맞춤형 출가제도다.

도입 이유에 대해 가섭 스님은 “출가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삶의 일부이며, 나이나 신체적 결함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출가자로 유입된다면 교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양이 되고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섭 스님이 제시한 고령자 특수 출가는 사회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불교발전

에 회향할 수 있게 하는 제능 출가와 신심과 원력으로 사찰 관리와 종무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봉사 출가로 나뉜다. 연령 70세 이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입교는 특별갈마위원회가 담당하게 한다. 장애인 출가의 경우 장애의 판정 기준에 따라 입교 여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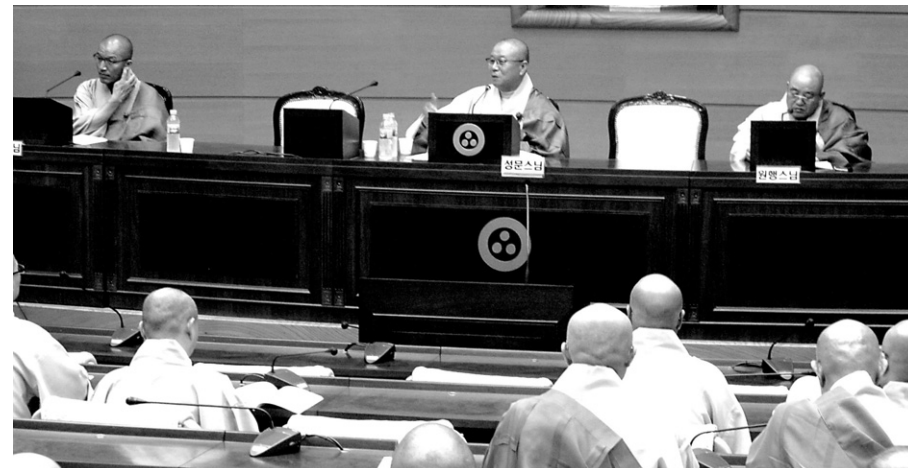
고령자·장애인 특수 출가 도입

군법당, 단기출가학교 등 활용

청소년·청년 포교 중요성 역설

이에 대해 가섭 스님은 “특수 출가자 지원 체계의 조속한 마련은 종단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회에서도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종단도 이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보광 스님도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종단 출가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광 스님은 “고령 출가의 경우 현행 50세 이하로 규제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진정으로 발심 출가의 의지가 있다면 그 이상도 풀어야 한다”며 “장애인 출가 역시 수행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이 6월 14일 열린 출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청소년 포교를 통한 출가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조계종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고령자, 장애인 특수 출가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출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군법당을 통한 출가자 양성 △유소년 출가 유도위한 정책 수립 △출가 홍보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청소년·청년 계층 포교를 바탕으로 출가 정책을 주장했다. 스님은 △중립 중고등학교와 파라미타 청소년 대상 예비 출가자반 운영 △종단, 교구본사 차원 출가 학교 운영 △출가 상담소 개설 등을 제안했다.

성문 스님은 “종단의 출가 정책은 이제 적극적인 영입정책으로 가야한다”면서

“단순히 양적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닌 어떤 인재를 양성할 지에 대한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출가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법이 이번 공청회 이후 바로 제시되어야 한다. 종단 중앙에서 구체적 성과를 보이고 이를 각 교구에 제안해야 한다”며 “출가자 영입 정책은 중앙과 교구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어떤 중무중점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립된 의견들을 토대로 종단 출가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행 ‘저소득층 가정에 희망의 빛 선사’

동국대 일산병원과 지정 의료기관 협약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이 6월 14일 동국대 일산병원(병원장 채석래)과 지정의료기관 협약을 맺었다. 동행은 이번 협약으로 각막이식 수술 및 안과질환 치료를 시급한 저소득 가정 환자의 개인수술비를 지원한다.

동국대 일산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해일스님,

동국대 일산병원 채석래 병원장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향후 동행은 수술비를 지원받은 저소득층 환자를 추천받는다. 일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환자는 각막이식수술비와 안과 질환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02)737-9595, 농협 301-0105-5258-91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정혜숙 기자



아름다운 동행은 동국대 일산병원과 지정의료기관 협약을 맺고 개인수술 환자들에게 나선다.

도박, CCTV 설치 스님 3명 불구속 기소

5명은 약식 기소, 1명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과 백양사 무공 스님에 대해 도박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스님 5명은 약식기소했다. 도박에 참여하지 않은 스님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호텔 객실에 무단 침입해 폐쇄회로를

설치하고 도박장면을 촬영한 백양사 보연 스님과 설치업자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스님들의 도박이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고액이거나 불법, 상습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국민과 불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고,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사법 처리 수위를 강하게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일 기자

진각종 ‘진각오색등축제’ 개최 6월 12~17일 하월곡동 일원서

진각종(총무원장 혜정)은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진각오색등축제’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 일대에서 개최했다. 진각오색등축제에서는 황공작명왕, 경천사지10층석탑 등 전통등과 장엄등이 전시됐으며, 미니콘서트, 체험마당 및 부대

행사도 진행됐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후 8시에 마련되는 미니콘서트에서는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퓨전국악팀 프로젝트 락 등이 선보였다.

진각종 문화사회부는 “진각종은 5월에서 6월 두달동안 진각성존 회담중조 탄생절(5월 10일)과 부처님오신날(5월 28일), 장교절(6월 14일) 등 의미있는 날들이 많아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진각오색등축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법왕

추 일봉 존자 탄신 98주년 및 열반 16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 모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성취를 기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봉존자!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하의 법체정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하시고 초대법왕을 역임하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봉선교종의 창종주 일봉 서경보존자님의 탄신 98주년 및 원적 16주기를 추모하는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일봉존자님과 인연이 있는 문도 및 종도, 그리고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시어 일봉존자님의 사상을 기리면서 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 2556년 6월

다 음

- ◎일 시 : 불기2556(2012)년 6월 28일 (음 5.9) 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재)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일봉사
◎연락 및 문의처
1. 총무원 : 전화(02)991-8175, 8904 전송(02)991-8176
2. 일봉사 : 전화(055)572-7777
◎홈페이지: http://ilbung.org

- ◎증 명 : 지공, 무찰.
◎고 문 : 청송, 원각, 송은, 수암, 혜천, 도기, 동봉
◎봉행위원장 : 경원 - 봉행부위원장 : 용운
◎지도위원장 : 혜운 ◎ 지 도 위 원 : 일명, 해광, 경담, 자명.
◎기획위원장 : 법선 - 기획부위원장 : 고봉
◎집행위원장 : 법성 - 집행부위원장 : 호원
◎추진위원장 : 법해 - 추진부위원장 : 대각
◎진행위원장 : 덕봉 - 진행부위원장 : 지연
◎동원분과위원장 : 경담, 대성, 도정, 도혜, 제법, 자건, 지연, 청호, 현암, 헤일
◎총무분과위원장 : 석성 ◎재무분과위원장 : 동청 ◎의전분과위원장 : 도허
◎홍보분과위원장 : 만성 ◎봉사분과위원장 : 보해

(재)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일봉존자 탄신 98주년 및 열반 16주기 추모봉행위원회

주최 : (재)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이사회·총무원

주관 : (재)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일봉사